



#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3-15호 (2023.11.10)

## ■ 이 슈

(경기) 2023년 하반기 인천시 수출 동향  
및 2024년 전망

## ■ 주요 산업 현황

(제조) 기계장비산업 시장 동향

## ■ 국내 정책동향





#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3-15호 (2023.11.10)

## Cotents

### I. 이 슈

(경기) 2023년 하반기 인천시 수출 동향 및 2024년 전망 ..... 1

### II. 주요 산업 현황

(제조) 기계장비산업 시장 동향 ..... 7

(부록) 주요 산업 경기지표 ..... 10

### III. 국내 정책동향

(교육)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첨단기술 분야 훈련기회 확대 ..... 11

(산업) 산업단지 입주 제조기업의 타 업종 등록 제한적 허용 ..... 11

(안전) 인파밀집 위험 수준을 사전에 알리는 인파관리시스템 시범서비스 실시 12

(산업) 국토부, 스마트물류센터 추가 인증으로 물류기업 지원 ..... 12

(산업)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해 자율차 기술개발 지원 13

(과학) 국가전략기술 발전을 위한 ‘인공지능·첨단바이오 전략 로드맵’ 수립 .... 13

(기술) 정부, 6G 상용화·표준화를 위해 4,407억 원 투입 ..... 14

(복지) 취약계층의 부담완화를 위한 난방비 및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 14

#### 연구진

최태림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민규량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상민경	인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 추진단 연구원
김효영	인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 추진단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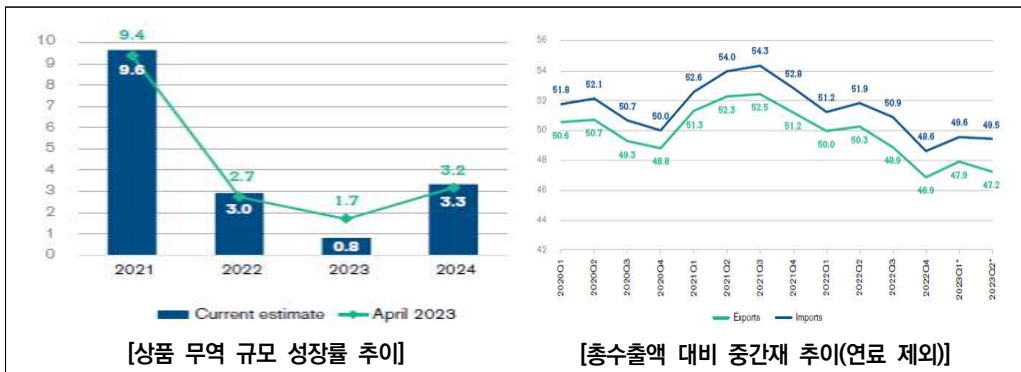
## 경기

## 2023년 하반기 인천시 수출 동향 및 2024년 전망



#수출 #무역수지 #대외 수출 여건 #2024 수출 전망

- 지난 10월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는 인플레이션, 높은 금리 수준, 미(US) 달러화 강세, 지정학적 긴장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무역 경기둔화가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2023년의 세계 무역 성장률 전망치를 1.7%(23.04)에서 0.8%로 하향 조정(WTO, 2023)
- 올해 무역 경기의 둔화가 다수의 국가에서 철강, 사무통신기기, 의류 등의 제조업을 포함한 다양한 상품군에서 폭넓게 나타나고 있으나, 2024년의 무역 성장률은 지난 4월 전망치(3.2%)와 유사한 3.3%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
- 2024년의 국제무역 증가율은 안정적인 실질 GDP 성장과 함께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며,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중국의 경기가 회복된다면 국제무역 규모의 성장에 더욱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
- 한편 글로벌 공급망 활동의 지표가 되는 총무역액 대비 중간재 비율이 2023년 상반기 48.5%로 감소<sup>1)</sup>하며 공급망 분열의 징후가 드러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



\* 자료 : WTO(2023.10)

\* 주 : 무역 규모 성장률은 연도별 증가율(%) 단위, 총수출액 대비 중간재는 비중(%) 단위로 작성

[그림 1] 국제무역 성장률 전망 및 중간재 수출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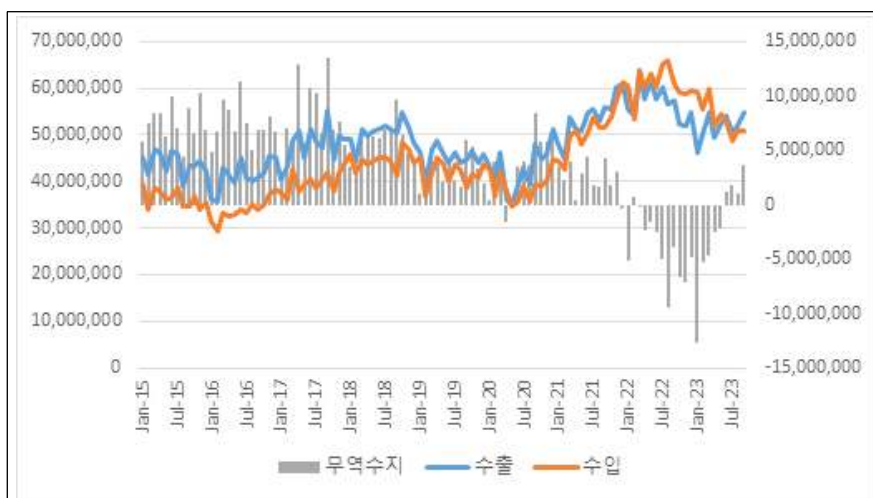
- 2023년 들어 우리나라 수출입액은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9월 기준 수출액은 2022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출감소율을 기록하며 최근 2년 내 최대 흑자를 달성<sup>2)</sup>
- 2023년 9월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4.4% 감소한 546.6억 달러, 수입액은 전년동월대비 16.5% 감소한

1) 총무역액 대비 중간재 비율은 지난 3년 평균 51.0% 수준.

2)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2023년 10월 수출입동향을 발표했다(2023.11.01), 한국무역협회 K-stat에서는 9월 정보까지만 제공하고 있어 인천지역 추이와의 비교를 위해 9월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

약 509.6억 달러 수준으로, 9월 무역수지 흑자액은 약 37.0억 달러를 달성

- 9월 국내 무역수지 흑자는 2021년 9월 이후 2년 내 최대규모의 흑자액으로, 국내 무역수지는 2023년 6월부터 4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회복기에 진입
- 2023년 1월~9월 수출액 누계는 약 4,643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1.5% 감소, 수입액 역시 약 4,840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2.6% 감소하였고,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전년동기대비 소폭 감소한 197억 달러 수준
- 2023년 1월~9월 수출액 누계 기준 10대 수출입 품목은 대체로 수출 및 수입액이 전년동기대비 동반 감소한 가운데, 자동차 및 정밀화학원료의 수출입액만 전년동기대비 증가<sup>3)</sup>
- 9월 수출액 기준으로는 자동차(9.5%), 일반기계(9.8%), 선박(15.4%), 철강(6.9%), 디스플레이(4.2%), 가전(8.5%) 등 6개 주력 수출 품목의 수출액이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여 수출감소율 개선에 기여
- 2023년 1월~9월 수출액 누계 기준 10대 수출국 중 중국, 일본, 대만, 호주와의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했으며, 대체로 전년동기대비 수출입액이 동반 감소한 가운데 미국으로의 수출만 전년동기대비 0.4% 증가<sup>4)</sup>



\* 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수출입 무역통계' 참고 및 재구성(2023.10.31 기준)

\* 주 : 동 그래프는 1,000\$ 단위로 작성

[그림 2] 월별 무역 수출입 추이(2015.01-2023.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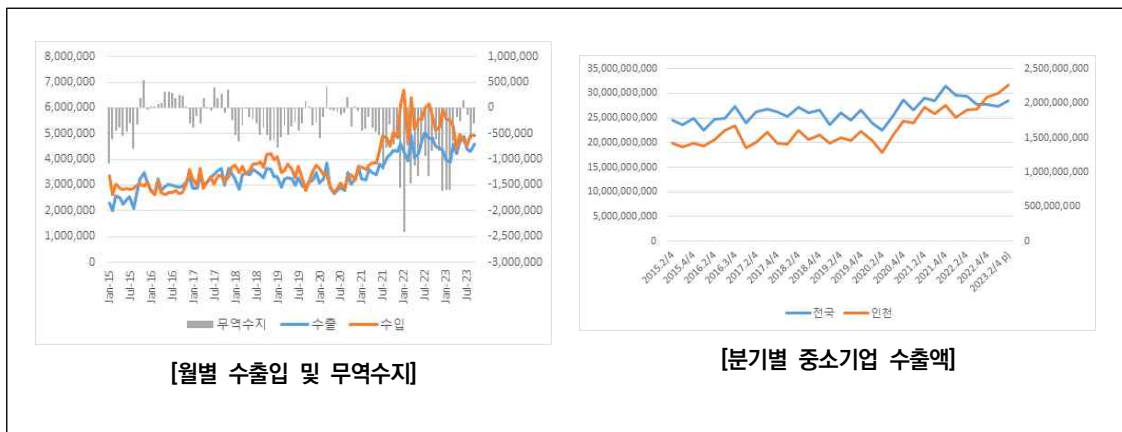
- 인천시 수출액은 2015년 이후 등락을 반복하며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23년 3분기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저조한 수준
- 2023년 9월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5.4% 감소한 46.0억 달러, 수입액은 전년동월대비 13.9% 감소한 약 49.1억 달러로, 수출입액 모두 연속 3개월째 전년동월비 감소
- 인천시 수출은 주요 주로 반도체, 자동차, 농약 및 의약품에 의존하고 있는데, 2023년 하반기의 경우

3) 2023년 9월까지 누계액 기준 우리나라 10대 수출 품목은 ①반도체 ②자동차 ③석유제품 ④합성수지 ⑤자동차부품 ⑥철강판 ⑦정밀화학원료 ⑧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⑨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⑩무선통신기기 순. 자동차는 수출입액이 각각 전년동기대비 35.8%, 9.4% 증가하였으며, 정밀화학원료는 전년동기대비 수출이 13.4%, 수입이 10.3% 증가.

4) 2023년 9월까지 누계액 기준 우리나라 10대 수출대상국은 ①중국 ②미국 ③베트남 ④일본 ⑤홍콩 ⑥대만 ⑦인도 ⑧호주 ⑨싱가포르 ⑩멕시코 순.

△주요 수출국인 중국 및 베트남 수출 감소 △신차 수출 증가세 정체 △바이오시밀러 및 백신 수출 감소 등으로 인하여 전년동월비 저조

- 2023년 1월~9월 인천시 수출 누계액은 전년동기대비 3.4% 감소한 395.4억 달러, 수입액은 13.8% 감소한 약 447.6억 달러로 타 지자체 대비 수출액 감소 폭이 양호한 수준<sup>5)</sup>
- 인천지역 중소기업 수출액은 전국 추이와 달리 2022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로, 지역 내 중소기업의 수출액은 2023년 3분기 말 기준 전기대비 5.5%, 전년동기대비 19.0% 증가한 약 226천만 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
- 전국 중소기업의 수출액은 2022년 2분기 이후 약보합세를 보이는 가운데, 인천 중소기업의 수출액은 같은 기간 지속적인 플러스(+) 성장



\* 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수출입 무역통계', 국가통계포털(KOSIS) '중소기업 수출동향' 자료 참고 및 재구성

\* 주1 : 월별 수출입 및 무역수지 그래프는 1,000\$ 단위로 작성되었으며, 좌측은 수출입액, 우측은 무역수지를 기준으로 작성

2 : 분기별 중소기업 수출액 그래프는 \$ 단위로 작성

[그림 3] 인천 수출입 동향(2023.09)

○ 2023년 1월~9월 누계액 기준 인천의 주요 수출 품목은 반도체, 자동차, 농약 및 의약품 등이며, 수출액 기준 주요 무역대상국은 중국과 미국, 베트남 순

- 인천의 10대 주요 수출 품목은 아래 [표 1]과 같으며, 반도체, 자동차, 농약 및 의약품의 상위 3개 품목의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의 약 44.7%를 차지
- 10대 수출 품목의 무역수지 누계액은 약 1,379천만 달러로, 반도체와 석유화학 중간원료를 제외한 8개 품목 모두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
- 자동차 및 건설광산기계의 전년동기대비 수출액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지역 수출액의 1/4에 해당하는 반도체 수출액이 감소하며 10대 품목의 수출 총액은 전년동기대비 5.2% 감소한 2,780천만 달러를 기록
- 인천은 전체 수출 중 약 45.6%를 중국과 미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주요 수출국별 수출 1위 품목은 반도체(중국, 베트남, 대만, 싱가포르), 자동차(미국), 농약 및 의약품(일본), 철강판(인도) 등

5)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무역통계' 자료에 따르면 17개 지자체의 2023년 1월~9월 수출 누계액의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은 대구·경남(9.9%), 광주(0.7%), 경북(-0.3%), 서울(-3.0%), 인천·강원(-3.4%), ..., 전남(-25.4%), 세종(-29.8%), 충남(-31.3%) 순.

- 對중국 및 對베트남 수출의 전년동기비 감소로 인하여 인천시의 주요 7개국 수출 총액은 전년동기대비 6.9% 감소한 2,639천만 달러를 기록했으나, 수입액이 동반 감소하여 무역수지는 343천만 달러 흑자

[표 1] 인천 주요 품목별 무역 수출입 추이(1월~9월 누계)

(단위 : 천만\$, %)

구분	2022년					2023년				
	수출	전년비	수입	전년비	수지	수출	전년비	수입	전년비	수지
전체 품목	4,094	25.2	5,191	38.9	-1,097	3,954	-3.4	4,476	-13.8	-521
반도체(831)	1,278	54.3	1,194	44.9	84	951	-25.6	969	-18.8	-18
자동차(741)	361	11.0	29	17.6	332	524	45.1	15	-49.4	509
농약 및 의약품 (226)	335	54.2	96	150.1	239	292	-12.6	116	21.4	176
철강판(613)	270	26.0	50	-20.8	220	236	-12.7	47	-4.8	188
무선통신기기 (812)	56	-15.8	29	28.0	26	160	187.0	38	30.3	121
건설광산기계 (725)	131	2.1	17	17.4	114	149	13.5	16	-4.7	133
석유제품(133)	149	60.4	58	29.0	91	130	-12.7	75	29.4	55
비누치약 및 화장품(227)	155	3.2	1	-11.3	154	128	-17.3	1	8.3	127
석유화학 중간원료(212)	91	11.0	0	91.6	91	106	16.6	0	5.2	106
자동차부품 (742)	108	11.2	89	-10.7	19	104	-4.1	123	38.5	-19

\* 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수출입 무역통계' 참고 및 재구성(2023.10.31 기준)

\* 주1 : 수출입 품목의 구분은 MTI코드의 3자리 숫자를 이용

2 : 전체는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주요 수출 품목은 2023년 5월 누적 수출액을 기준으로 상위 10대 수출 품목에 해당하는 품목을 선정하여 작성하였으며, 전년동기비 증감률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표 2] 인천 주요 국가별 무역 수출입 추이(1월~9월 누계)

(단위 : 천만\$, %)

구분	2022년					2023년				
	수출	전년비	수입	전년비	수지	수출	전년비	수입	전년비	수지
중국(CN)	1,340	39.0	692	8.3	648	1,055	-21.2	660	-4.7	395
미국(US)	683	15.1	570	49.4	113	747	9.4	524	-8.0	223
베트남(VN)	318	19.2	86	22.5	232	287	-9.9	173	100.8	114
대만(TW)	147	-10.9	595	52.5	-448	168	14.5	456	-23.3	-288
일본(JP)	131	-7.9	360	36.1	-229	142	8.7	311	-13.5	-169
싱가포르(SG)	132	53.7	83	-2.6	49	139	5.8	114	37.0	26
인도(IN)	85	24.8	44	59.1	40	100	17.7	57	28.7	42

\* 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수출입 무역통계' 참고 및 재구성(2023.10.31 기준)

\* 주 : 주요 수출대상국은 2023년 5월 누적 수출액을 기준으로 상위 7대 수출대상국에 해당하는 지역을 선정하여 작성하였으며, 전년동기비 증감률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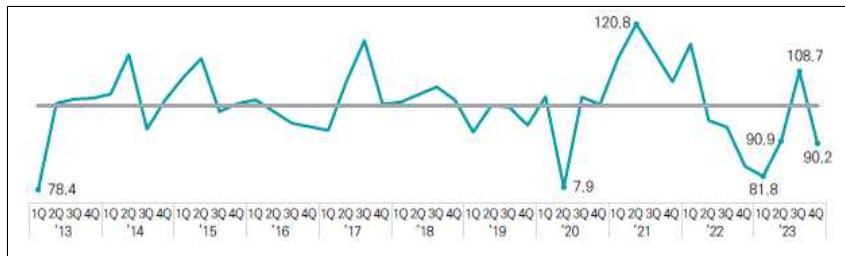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경우 대내외적 요인으로 인해 2023년 4분기부터 수출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중국 경기부진 및 중동 분쟁, 주요국 금리인상 지속 등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글로벌 경기 회복이 지연될 경우 수출 경기 회복세가 더디게 나타날 가능성 존재

-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미국 등 경기호조 지속 △달러 강세 △높은 유가 수준 △반도체 단가 하락



완화 △자동차 수출 호조 등으로 인해 수출선행지수가 2분기 연속 상승하며 2023년 4분기부터 수출 경기가 회복될 전망

- 국내 10월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5.1% 증가한 550.9억 달러, 무역수지는 16.4억 달러 흑자로, 20개월 만에 불황형 흑자를 탈출하여 전년동기비 수출액 증가와 무역수지 흑자를 동시에 달성하며 수출경기 회복 조짐(산업통상자원부, 2023.11)
- 품목별로는 이차전지 및 컴퓨터를 제외한 대다수의 주요 품목에서 수출 모멘텀이 개선되었는데, 특히 자동차와 기계, 선박 등의 수출액이 크게 증가하고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액이 가장 낮은 감소율을 기록하며 수출 경기가 개선 흐름
- 반면 △중국 경기부진 지속 △중동 분쟁 장기화 △주요국 물가상승 및 금리인상 △원자재가격 상승 등의 글로벌 경기 불안 요인이 산재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
- 무역협회에서 조사·발표하는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에 따르면 국내 수출기업들은 수출경기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특히 △높은 원화환율 변동성 △중국 부동산 위기 △국제 유가 상승 △수출대상국 경기부진 장기화 등으로 인한 글로벌 수요 둔화와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우려가 확대
- 품목별로는 선박(145.8), 무선통신기기·부품(129.7), 의료·정밀·광학기기(119.4), 생활용품(116.4) 등의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농수산물물을 포함한 이외의 모든 품목에서 수요 감소 및 비용상승 등으로 인한 수출 여건 부진을 전망



\* 자료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2023.09)

\* 주 : 100 이상은 경기개선 전망을, 100 미만은 경기악화 전망을 의미

[그림 4] 분기별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BSI) 추이(2013-2023)

- 인천시 수출에 있어 △미국 경기 호조 지속 △자동차 수출 호조 △반도체 단가 하락 등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나, △중국 및 제3국의 경기부진 △원재료 가격 상승 △고유가 등 부정적 요인이 지속될 경우 수출경기 부진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 존재
- 한국은행 조사 지역별 기업경기실사지수에 따르면 인천의 2023년 10월 수출실적 및 11월 수출전망은 84 수준으로, 6~9월에 비해서는 수출실적·전망이 모두 증가 전환했으나 2021년 7월 이후 감소세가 지속
- 인천시 수출은 △반도체 △자동차 △농약 및 의약품 △철강판 △석유화학 등 주요 품목이 전체 수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및 미국에 대한 수출액 비중이 약 45.6%로 일부 품목 및 국가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주요 품목 및 국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 특정 품목 및 국가에 대한 의존도 감소를 위하여 품목·수출국 다변화 전략을 꾸준히 추진하고, 향후 지역의

무역경쟁력 강화 및 안정화를 위해 '친환경' 품목과 원자재 적기 확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 주요 수출 품목 및 대상국의 경기가 부진하더라도 이를 다른 부분에서 만회할 수 있도록 수출기업의 유망 수출 품목 및 수출 대상국 발굴을 지원할 필요
- 최근 국제사회의 '친환경'에 대한 관심 증대에 따라 수출액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 등 글로벌 수요가 충분한 분야에 대한 전략적 집중이 요구
- 지정학적 불안과 글로벌 공급망 분절화 등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비하기 위해, 수출기업의 원자재 수입국 다변화를 지원하고 주요 원자재의 비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지역별 기업경기실사지수' 참고 및 재구성

\* 주 : 100 이상은 경기개선 전망을, 100 미만은 경기악화 전망을 의미

[그림 5] 인천시 기업경기실사지수 수출 부문 실적 및 전망(2017-2023.11)

## 제조 &gt; 기계장비산업 시장 동향



#기초산업기계 #산업기계 #정밀기계 #기계요소공구 및 금형

- 2023년 9월 기준 국내 기계장비산업 수주액은 전년동월대비 8.8% 감소, 전월대비 3.8% 증가한 53,466억 원으로, 수주실적이 3개월 연속 감소하여 총수주액의 분기 실적이 2023년 2분기에 비해 저조<sup>6)</sup>
  - 2023년 2월부터 대리점 수요의 전년동월비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및 해외 수주액 역시 최근 2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여 기계장비산업의 총수주액이 감소
    - 지난 6개월간 기계장비산업의 전월대비 증감률의 평균은 약 -3.4%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지난 6월 실적의 높은 기저효과로 인해 최근 2개월의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평균 증감률이 영향을 적게 받은 것으로 추정

[표 1] 국내 기계장비산업 수요자별 수주액 추이

(단위 : 억 원, %)

구분	'23.02	'23.03	'23.04	'23.05	'23.06	'23.07	'23.08	'23.09
총수주액 (증감률)	54,187 (4.2)	73,292 (4.4)	65,174 (7.5)	60,280 (0.1)	80,497 (25.3)	57,273 (-1.8)	51,511 (-19.5)	53,466 (-8.8)
국내 (증감률)	23,840 (-5.5)	34,490 (-5.2)	32,548 (12.8)	28,163 (-2.2)	31,760 (1.4)	29,478 (5.3)	25,658 (-22.5)	24,311 (-10.9)
대리점 (증감률)	4,690 (-3.5)	5,586 (-7.1)	5,499 (-6.5)	5,450 (-15.3)	6,068 (-13.5)	5,639 (-16.9)	4,302 (-11.9)	4,116 (-28.5)
해외 (증감률)	25,657 (17.0)	33,216 (19.5)	27,126 (4.9)	26,666 (6.7)	42,669 (64.8)	22,156 (-6.0)	21,551 (-17.0)	25,038 (-2.1)

\* 자료 : 통계청, '기계수주동향조사' 참고 및 재구성

\* 주1 : 최근 2개월 수치는 잠정치로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로 표기

2 : 각 자료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전국) 2023년 9월 국내 기계장비 생산지수는 소폭 개선된 반면, 기계장비 수출은 약보합세를 지속
  - (생산지수) 전국 기계장치 생산지수는 전월대비 7.7% 증가, 전년동월대비 8.7% 감소한 103.1로 집계
    - 다만 동 지수가 2021년 이후 등락을 반복하며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1년 하반기부터 출하지수에 비해 재고지수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
    - 지난 4월 이후 최근 6개월 사이에는 출하지수가 전년동월비 감소세를 유지하는 반면, 재고지수는 전년동월비

6) 기계산업 총수주액은 2023년 1분기 182,331억 원, 2분기 수주액은 205,951억 원인데 반해 3분기는 162,249억 원 수준으로, 전기대비 21.2%, 전년동기대비 10.3% 감소.

증가를 지속

- **(품목별 수출액)** 2023년 9월 국내 기계장비 수출액은 전월대비 0.7% 증가, 전년동월대비 0.9% 감소한 461.1천만 달러 수준)
  - 기초산업기계 수출액은 전월대비 4.0%, 전년동월대비 6.2% 증가한 144.1천만 달러로 2021년 이후 보험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산업기계는 전년동월대비 7.7%, 전월대비 4.9% 증가한 164.8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소폭 상승세
  - 한편 정밀기계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21.2%, 전월대비 10.9% 감소한 79.3천만 달러를 기록하여 2023년 들어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기계요소공구 및 금형 부문은 전년동월대비 0.6%, 전월대비 4.0% 감소하여 하향 안정세
- **(인천)** 인천지역의 9월 기계장비 생산지수는 110.0으로 지난 6월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출액 추이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
  - **(생산지수)** 기계장비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41.6%, 전월대비 8.6% 감소한 110.0으로, 지난 5월부터 전년동월비 감소가 지속
  - **(품목별 수출액)** 인천의 기계장비 총수출액은 전월대비 3.9%, 전년동월대비 5.5% 증가한 약 47.9천만 달러로, 품목별 수출액은 추이는 전국과 유사
    - 기초산업기계와 정밀기계는 전월대비 수출액이 감소했으나, 전년동월에 비해 각각 13.6%, 24.7% 증가하며 지난해에 비해 수출액이 크게 증가
    - 산업기계는 전월대비 14.5%, 전년동월대비 1.2% 증가한 20.8천만 달러를 수출했으나, 지난 3-5월의 수출액에 비해 저조한 수준
    - 기계요소공구 및 금형의 경우 기계장비산업 중 유일하게 전년동월대비 7.8% 감소하였으며, 2021년 이후 약보험세를 유지

[표 2] 국내 기계장치 산업생산지수 및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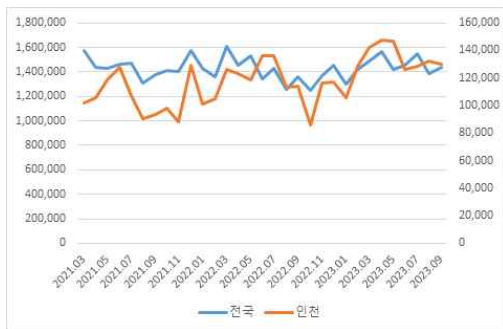
지역	항목	'23.06	'23.07	'23.08 (p)	'23.09 (p)	'22.09	전월비 (%)	전년 동월비 (%)
전국	기계장치 제조업	112.7	96.0	95.7	103.1	112.9	7.7	-8.7
인천	기계장치 제조업	147.4	130.2	120.4	110.0	188.4	-8.6	-41.6

\*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시도/산업별 광공업생산지수(2020=100)' 참고 및 재구성

\* 주1 : 산업생산지수 파악에 활용한 항목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반으로 구분하였으며,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의 자료를 이용

2 : 생산지수는 2020년을 기준으로 하는 원지수를 이용하였으며, 최근 2개월 수치는 잠정치로 추후 변동 가능

7) 이하의 기계장비 수출액은 기초산업기계(MTI71), 산업기계(MTI72), 정밀기계(MTI73), 기계요소공구 및 금형(MTI75)의 수출액 합산 값을 의미. 지난 8월 단위 오기를 수정(억 달러→천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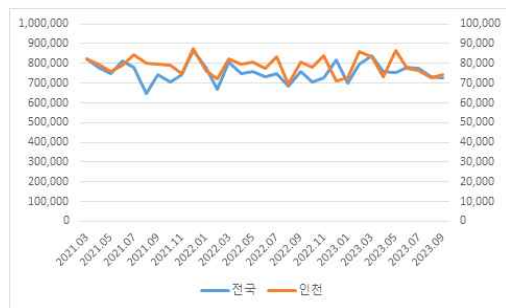
[기초산업기계(MT171)]



[산업기계(MT172)]



[정밀기계(MT173)]



[기계요소공구 및 금형(MT175)]

\* 자료 : K-stat 무역통계 '국내 품목 수출입 통계' 자료 참고 및 재구성

\* 주 : 수출 금액은 1,000\$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그래프 좌측은 전국 기준, 우측을 인천 기준으로 작성

[그림 1] 기계장비 품목별 수출 동향(2023.09)

[ 부록 ] 주요 산업 경기지표(2023.09 잠정)

제조업 생산지수	전국						인천					
	생산		출하		재고		생산		출하		재고	
	지수	증감	지수	증감	지수	증감	지수	증감	지수	증감	지수	증감
반도체	133.8	12.3	144.6	18.0	177.1	41.6	155.4	-10.9	163.2	-10.6	141.5	-8.4
자동차	115.2	0.1	115.1	1.2	116.9	22.5	114.4	-1.0	118.7	6.4	115.8	11.8
기계장비	103.1	-8.7	107.3	-2.7	137.8	3.1	110.0	-41.6	117.9	-34.2	174.2	76.5
바이오-의약	127.6	0.5	142.2	10.0	-	-	159.8	9.0	203.3	21.2	-	-
바이오-화장품	87.1	0.9	91.0	4.0	99.9	-12.2	102.9	-5.6	99.0	0.2	98.7	-0.1
건설 수주액 (억원, %)	전국						인천					
	공공		민간		공공		공공		민간		민간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건설	12,791	-63.3	91,011	49.5	381	-72.1	4,904	-0.7				

\*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및 '건설경기동향조사'의 산업별 통계 참고 및 재구성

\* 주1 : 각 산업의 통계 원자료 참고 시 항목명은 순서대로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건설수주 등

2 : 생산지수는 2020년 기준 원지수를, 건설수주액은 종합건설업체의 건설수주액 경상가격을 이용해 작성되었으며, 각 지표의 증감은 전년 동월 대비 비율로 표기

3 : 각 자료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교육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첨단기술 분야 훈련기회 확대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신소재·이차전지 등 첨단기술분야로의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장애인·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개정·고시
  -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급격한 기술발전 및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국민 누구나 직업훈련포털을 통해 교육을 수강하고 훈련비를 신청 가능
  - 이번 규정 개선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국가전략산업직종 신기술 훈련 신설 △취약계층 훈련비 추가 지원 △출석인정일수 확대 △지원대상 확대 등을 추진
    - 첨단기술 분야의 인력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신소재 개발 및 제조 △친환경·고기능 도료 코팅 △바이오의약품 생산 및 품질 관리 △디스플레이 생산 및 품질 관리 △이차전지 생산 및 품질 관리 등 5개 분야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신설
    - 취약계층 및 가사근로자에 대한 훈련비 지원을 확대하고 훈련생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의 출석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제적 요건을 합리화하고 훈련비 지원 대상을 추가 확대

## 산업

## 산업단지 입주 제조기업의 타 업종 등록 제한적 허용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부가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한 제조기업에 대해서 제조와 관련한 업종을 등록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입법예고
  - 이번 개정안은 산업시설구역 입주 제조기업의 부대시설 범위에 △전문건설업 △통신판매업 사무실 △위탁생산된 제품의 판매 △곤충생산시설 등을 포함하는 것이 골자
    - 개정안에 따라 입주기업 생산 제품을 발주기관에 직접 시공·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을 제조업의 부대시설로 허용하고, 공장 내 생산 제품의 통신판매를 허용할 계획
    - 또한 기업이 연구개발한 제품을 외부위탁생산하는 경우에도 자사 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며, 곤충가공업체가 원료로 사용할 목적의 곤충을 생산하는 시설일 경우에 한해 곤충생산시설을 부대시설로 허용
  - 이 외에도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요건 완화 △임차공장 퇴거 시 공장등록사항 변경 처리 △설립 중인 건축물 면적 변경 신고절차 간소화 등 입주기업의 애로사항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

#행정안전부

- 이동통신사 기지국 접속정보와 지역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인파밀집 위험을 예측하고, 위험도가 높아지면 경찰·소방에 즉시 전파하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 시범서비스를 10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실시
  - 인파관리시스템을 이용하면 지자체 상황실의 지리정보체계(GIS) 상황판에서 지역의 인파 밀집 정도를 히트맵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시스템을 통해 위험경보 알림을 받은 경우 CCTV를 통해 현장 상황을 확인 후 경찰·소방에 전파하는 등 인파밀집으로 인한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 가능
  - 시범서비스는 행안부에서 선정한 중점관리지역 중 서울, 부산, 대전, 인천, 경기의 30개 지역에서 운영될 예정으로, 중점관리지역은 지자체 수요조사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심사 위원회를 거쳐 선정
    - 인천에서는 △부평역 인근 △동인천역 북광장·화도진공원 △문학경기장 일대 △차이나타운 △송도달빛축제공원 등 5개 지역이 선정되었으며, 이외에도 서울 7곳, 부산 8곳, 대전 5곳, 경기 5곳 등이 포함
  - 행안부는 시범서비스 기간 동안 시스템을 이용하는 지자체 상황실 등 담당자 의견을 수렴하여 시스템의 기능과 성능을 보완한 후, 연내 정식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

#국토교통부

- 지난 10월 27일 우수 스마트물류 기술을 갖춘 물류센터 3개소를 “23년 제3호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하고, 이들이 물류산업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도’는 국가가 첨단·자동화된 시설 및 장비, 시스템 등을 도입해 효율성, 안전성, 친환경을 갖춘 물류센터를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하고, 인증된 센터에 대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 인증받은 스마트물류센터는 센터의 건축 또는 첨단·자동화 장비 구입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시설자금 1,500억 원, 운영자금 100억 원 한도로, 대출이자 0.5%~2.0%를 지원
  - 금번 인증받은 3개소는 로봇 및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하여 물류혁신을 이룬 △CJ 이천2 풀필먼트센터(CJ대한통운) △음성물류센터(풀무원엑소후레워물류) △남청라물류센터(LX판토스) 등

구분	인증 사유
CJ 이천 풀필먼트센터	•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로봇 분류 시스템 도입으로 입고→출고 과정을 일원화 처리
음성물류센터	• 전자석을 이용한 자동분류기(Sorter) 활용으로 연간 72만 톤 탄소 감축 • 갠트리로봇(Gantry Robot) 도입으로 신선식품의 판매매장 단위 분배
남청라물류센터	• 스마트셔틀 및 자율이동로봇 활용 첨단물류 프로세스 구축 • K-POP 앨범 및 굿즈 상품의 해외 특송과 국내 배송을 연계하여 물동량 처리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는 2016년부터 민간개발 자율주행차를 정식 등록 없이 실제 도로에서 시험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자율차 임시운행허가'의 절차를 개선하여 자율자동차 기술개발을 지원할 계획
  - 자율차 임시운행허가는 자율차의 자율주행 레벨과 관계없이 최소한의 안전운행 요건을 갖춘 자율주행차가 교통약자 보호구간을 제외한 모든 도로에서 최대 5년간 시험운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
    - 자율주행차의 시험·연구 목적 운영은 국토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안전운행요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관리
  - 국토부는 △임시운행 신속허가제 도입 △동일 자율차 인정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규범 제도 개선을 통해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지원하고, 민간의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을 촉진할 계획
    - '임시운행 신속허가제'는 기존 허가 실적 및 운행상황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임시운행 허가에 필요한 시험운행(실차시험)을 면제하여 신고제로 운영하는 제도로, 임시운행 허가 소요기간을 이전대비 30% 이상 단축하는 효과
    - 기존 허가 받은 자율주행차량과 비교하여 성능저하 없이 동일하거나 개선된 사양의 장치와 부품을 장착한 경우 동일 자율차로 인정하여 서류심사만 진행하는 등 허가 요건을 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부가 기술적 병목 해소와 신기술·산업 창출 등 연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인공지능(AI)과 첨단바이오 분야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임무 로드맵을 제시
  - 동 로드맵은 2023년까지 인공지능 및 첨단바이오 분야에서 달성해야 할 목표를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기획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인재 양성 △국제협력 △제도·인프라 개선 등 전략기술 생태계 조성 방안을 포함

분야	국가 임무·목표	투자 방향
인공지능	고효율 학습 기술 및 고성능·저전력 컴퓨팅 인프라 확보	경량화·클라우드 최적화 원천기술 개발 등
	자율성장 AI 기술개발 및 AGI 원천기술 선점	AGI 개념증명, 성능평가 등 선행연구 추진 등
	산업 내 AI 내재화·고도화로 혁신역량 강화	산업응용 가능 AI 개발, 트랙레코드 확보 등
	AI 역기능 최소화 및 신뢰성·안전성 글로벌 표준 제시	초거대 AI모델 신뢰성 검증기술 투자 등
첨단바이오	바이오 제조 기간·비용·속도 혁신, 합성생물학 제품 상용화	제조공정 단계별 핵심기술 확보 등
	유전물질 전달, RNA 플랫폼 등 기반기술 확보	민간기업 활용 가능 기반기술 확보 등
	감염병 백신 100일 내 확보 조기대응 시스템 구축	백신 관련 플랫폼 개발 및 임상 지원 등
	바이오·의료 빅데이터 특화 AI 개발로 맞춤형 의료 구현	바이오·의료 빅데이터 수집·구축·연계 지원 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G 상용화·표준화를 위해 △무선통신 △모바일코어 △6G 유선네트워크 △6G 시스템 △6G 표준화 등 5대 분야 기술개발에 총 4,407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할 계획
  - 6G의 분야별 주요 투자 기술에 대한 내용을 담은 과기정통부의 '6G R&D 추진전략'이 지난 11월 1일 개최된 '6G 글로벌 2023' 행사를 통해 발표
    - 무선통신 분야에서는 5G의 용량 및 커버리지 한계를 극복하는 'Upper-mid 대역(7~24GHz)' 개발, '초대용량 다출입 안테나 기술(E-MINO)' 개발 및 안테나 부품 제어용 IC칩 개발을 추구하고, 모바일코어 분야에서는 Cloud 기반 모바일 코어망 SW 및 AI기반 모바일 네트워크 기술을 개발할 예정
    - 6G와 관련한 분야에서는 초고속·대용량 광전송 시스템 및 부품 기술 개발을 통해 초실감·고정밀 서비스를 지원하며, 사용자 단말과 6G 융합서비스(무선통신·모바일코어·유선네트워크)를 연결하는 6G 시스템을 개발하며 다양한 6G 융합서비스의 성능을 보장할 계획
    - 또한 2024년부터 본격화될 6G 관련 국제 산업표준화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별도의 표준연구지원체계를 운영하여 연구성과물이 국제표준에 연계될 수 있도록 6G 표준화를 지원
  - 과기정통부는 동 전략에 따른 연구성과물이 6G 상용화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단계별 기술 검증 △중간성과물(Pre-6G) 시연('26) △연구개발 성과물의 통합시스템 시연 및 상용화('28-'30)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

- 정부가 글로벌 에너지 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취약계층의 겨울 난방비 부담 완화와 전국민의 동절기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을 발표
  - 동 대책에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확대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과 에너지 절약 유인책 및 홍보 강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
    - △에너지바우처 평균 지원금액 인상(30.4만 원) △가스·열요금 최대 59.2만 원 할인 △등유·LPG 난방비 최대 59.2만 원 및 등유바우처(64.1만 원)·연탄쿠폰(54.6만 원) 지원 △복지시설 난방비 감면·지원 등을 통해 취약계층 및 취약부문의 난방비를 지원
    - 취약계층 및 시설에 대한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및 단열·창호 교체 등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을 확대하고, 에너지개시백의 인센티브 및 홍보 강화를 통한 전국민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캠페인 참여 유도
  - 이 외에도 국민에게 실시간 에너지 사용량·요금 데이터를 제공하고, 산업현장과 대형건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수요관리 제도 우수사례를 확산하는 등 자발적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유도할 계획

## 참고 자료

- WTO, 「Global Trade Outlook and Statistics - Update: October 2023」, 2023.10.
- WTO, “WTO lowers 2023 trade growth forecast amid global manufacturing slowdown”, 2023.10.05.
-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9월 수출입 동향”, 2023.10.01.
-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10월 수출입 동향”, 2023.11.01.
-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 「2023년 9월 인천 수출입 동향」, 2023.10.17.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2023년 4/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EBSI)」, TRADE FOCUS 2023년 17호, 2023.09.21.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최근 우리나라 수출영향 요인 분석 : 원/달러 환율 및 위안/달러 환율을 중심으로」, TRADE FOCUS 2023년 20호, 2023.10.24.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23년 3분기 수출실적 평가 및 4분기 전망」, 2023.11.
- 한국개발연구원(KDI), 「KDI 경제전망 수정 2023.8」, 2023.08.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최근 소비재 수출 동향 및 시사점」, TRADE BRIEF no.14, 2023.08.18.
-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미국 IRA 시행지침이 우리나라 배터리 공급망에 미칠 영향」, KITA 통상리포트 2023 vol.09, 2023.09.06.
-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미국과 EU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과 시사점」, KITA 통상리포트 2023 vol.08, 2023.08.31.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중국 흑연 수출통제의 영향 및 대응방안」, TRADE BRIEF no.18, 2023.10.31.
- 국가통계포털(KOSIS), ‘기업경기조사 - 지역별 기업경기실사지수’.
- 국가통계포털(KOSIS), ‘기계수주동향조사’.
-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동향조사’ 및 ‘건설경기동향조사’.
- K-stat 무역통계, ‘국내 품목별 수출입 통계’ 및 ‘국내 지역별 수출입 통계’.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민내일배움카드’에 신소재 등 첨단 신기술분야 훈련 확대”, 고용노동부, 2023.10.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산단 입주 제조기업에 전문건설업·통신판매업 사무실 허용”, 산업통상자원부, 2023.10.2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도시에 ‘현장인파관리시스템’ 시범 실시…인파밀집 위험 예측 대응”, 행정안전부, 2023.10.26.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물류도 스마트하게…스마트물류센터 3곳 추가 인증”, 국토교통부, 2023.10.27.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자율차 임시운행 신속허가제 도입…허가기간 30% 단축”, 국토교통부, 2023.10.30.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데이터·전력소모 절반도 안되는 고효율 AI 개발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10.3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6G 시장’ 경쟁력 확보…4407억 원 투입해 관련 기술개발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11.0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겨울철 난방비 부담 줄인다…취약계층 최대 59만 2000원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2023.11.02.

#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3-15호(2023.11.10)

**발 행 처** 인천연구원  
**발 행 일** 2023년 11월 10일  
**주 소** (22711)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전 화** 032-260-2600  
**홈페이지** [www.ii.re.kr](http://www.ii.re.kr)

본 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으로 연구원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인천연구원에 귀속되며, 원고의 무단전재, 복제, 배포 등  
저작권 전반에 관한 침해 행위를 금합니다.